

## 社會主義社會의 分析과 이데올로기 批判

尹 謹 植  
(成均館大 政外科)

### 1. 피할 수 없는 政治이데올로기의 긴장 완화

“세계 경제를 살펴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엄청난 변화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관심은 변화가 많았던 자본주의 경제권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경직적인 체제로 인식되었던 사회주의 경제권에서도 최근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있음을 볼 때 세계 경제에 관한 조망은 당연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 이 두 체제는 주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체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두 체제 사이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간에 두 체제는 그동안 확고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개혁과 수정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支配이데올로기 테두리 안에서만 시도되었다. 그러나 최근 두 체제내에서 그동안 사상과 행동을 제한해 왔던 이데올로기 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소련에서 케데스트로이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같은 개혁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당시 古典적인 자유기업주의의 창달을 주장했지만, 현재 그것은 말로만 남아 있을 뿐 적정 생산과 失業率 억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간섭 활동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상대 체제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미·소 두 강대국의 준비속으로 연결될 경우 두 국가는 물론 다른 국가들도 전쟁의 위협에서 점차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對決의 비용은 항상 비싸다. 국가간의 대립이 완화되고 각 국가내의 모든 조직이 협력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지난 9월 8일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겔브레이스 교수의 ‘세계 경제의 미래’라는 강연 요지에서의 인용이다.

바로 여기에 西方 사회들과 이들 사회의 사회과학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社會分析들에 있어 支配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해 왔으며,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수정 또는 변화되어 왔는가를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시각에서 논의해야 할 현실적인 까닭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2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소련 外相 세바르드나제는 앞으로 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에 구애되지 않고 국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다. 그는 소련 자체의 급진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국제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하고, 국제 관계에서 平和共存을 보편적인 원칙으로 삼으며, 그러나 후루시초프의 경우와는 달리 그것을 ‘제급 투쟁의 한 특수 형태’로 보지 않

겠다고 선언했다 한다.

겔브레이스 교수가 말하듯이 이질적인 두 사회 체제의 체계적 필요에 의해서도 ‘東西協力體制의 시대’에로의 급변이 강요되고 있다면, 그러한 政治이데올로기적 긴장 완화에 관한 세계사적인 인식은 이제까지의 사회주의 사회의 분석에 관한 이데올로기 批判적인 논의를 뒤늦게나마 제기한다.

## 2. 西方 社會科學界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社會의 분석과 그 발전

1956년에 처음으로 세계 사회학자 대회에 참석했던 소련 학자들을 西方側 보도에서는 ‘사회학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強制 자켓트’에 과몰입 있는 ‘(石器時代의) 네안데르탈의 사람들’이라 평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1974년 8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던 제8차 世界社會學者大會에 참석했던 미국 政治社會學者 립셋(Seymour M. Lipset)은 미국 사회학회의 年次大會에서의 그의 보고에서 자신이 “캐나다에 있는지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지, 토론토대학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스크바대학에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평가의 변화는 자본주의 사회들에 있어서 수 많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마르크스주의적 社會學의 발달에 관한 학문적 분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경우 英美圈 社會學者들은 압도적으로 소련 社會學과 對決했으나, 한편 分斷國家인 西獨 社會學者들은 동구권에 있어서의 社會學의 발달을 다루어 마르크스주의적인 社會學者들이 구체적인 사회주의 사회들을 연구해낸 社會學的 개념들과 이론들을 수용함에 이르렀다.

西方의 사회주의 사회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주의 사회들에 있어서의 이러한 발전의 국면을 ‘발전된 産業社會’에로의 이행 단계로서, ‘脫스탈린화의 국면’으로서 또는 ‘全體主義의 體制의 修正化’의 국면으로서 파악하고 있음에 반해 마르크스주의적 사회학은 이러한 국면을 社會構成體들의 연속 속에서의 발전의 귀결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社會構成體들의 범주들로서 파악한다. 1960년대초에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社會主義의 토대들’〔이른바 下部構造(Basis)〕이 창조되었고, 이제 ‘사회주의의 고유한 토대들’ 위에서 그 사회주의가 발전될 수 있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났다면, 이제 수 많은 발전 경향들과 구조 변화들이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體制的 關聯 속에서 그러한 일반적 개념들로 특징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鄧레스 시기의 冷戰, 東西 블록 형성의 상황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社會政治體制의 대결이 그동안 西方 社會學을 틀지워 왔다. 그리하여 1960년대까지 西方 社會學者들은 歐美 政治文化的 자료와 개념들에 의해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도구에 의해서는 사회주의 사회들의 사회 정치를 이해할 수 없었음이 통례였다.

西方 社會學은 사회주의 사회들을 그 사회들의 ‘社會’를 분석하지 않은 채 지난 날 西方 社會들이 겪은 파시즘支配體制의 像에서 얻었던 ‘全體主義’이론들로 분석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형성되었던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反파시즘 聯合戰線의 형성은 이제 무너지고 政治이데올로기적으로 反파시즘적 思考는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同一化에 의해 反공산주의적 思考에로 변질되도록 강요되었다. ‘自由對 反自由’, ‘多元性對 反多元性’, ‘合理性對 反合理性’이라는 黑白論理가 자본주의對 사회주의의 도식으로 적용됨에 이르렀다. 이러한 反歷史적인 도식적 논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社會의 分析을 인식의 차원에서 배제시켰다. 사회주의 사회들은 ‘反自由的’이고 ‘反多元的’이고 ‘反合理的’인 사회로서 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1960년대에 사회주의 사회들에서 결과된 독자적인 발달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된 西方의 全體主義 이론들은 산업 사회의 이론(또는 體制收斂論)에 의해 보완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들 역시 사회주의 사회들 그 자체들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발달들을 경시했다. 1950년대에 있어서는 冷戰 思想과 함께 경제적 문제들과 테크노로지 문제들에만 집중하는 실용적 思惟가 西方 社會學을 지배했으며, 그리하여 全體社會體制를 문제시 하

는 思维方式들을 밀어냈다.

그리하여 西方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사회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그 全體社會를 내다볼 수 없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언제나 그 대상의 새로운 부분적 영역과 부분적 국면들이 특수 연구의 대상으로 되었고 또한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그 사회의 전체성 속에서 그 대상의 적실성 있는 개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최근에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논의는 결코 구체적인 社會理論의 次元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이론적 차원에 관한 학문적 冷談이 심한 일력 속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연구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이론적 개념들에 사실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본다.

全體主義 이론은 二元論의 命題, 즉 社會(經濟)와 國家(政治)의 분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점에서 1960 년대에 사회주의 사회들에 있어서의 '變化들'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產業社會 理論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산업사회'라는 發想은 사회주의 사회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基本 形態를 파악하려 하지 않는다. 이 발상의 要因 多元主義 모델의 핵심으로서 표명되고 있는 것은 일면에 있어 산업 사회, 타면에 있어 사회주의적 政治 또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분리시키고 있는 二元論(또는 二元論의 方法)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모든 '본질적인 차이성', '모든 특수성'은 후자(그러므로 사회주의적 정치 또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영역에 전가되고, 그러나 그에 의해 內容 없는 同語反覆의인 해석들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 사회의 발달들은 '政府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발된 변조'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產業社會 理論(또는 體制收斂論)의 이론적 출발점은 시종일관 全體主義 理論의 理想主義의 政治觀에 이르게 된다. 全體社會의 基礎(이른바 '下部構造')에서 上部構造와 그로부터 출발하는 政治 特性의 조건과 설명을 추구하는 대신에, 역으로 그 사회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政治이데올로기적 관청들의 客體로서 표현된다. 결국 사회경제적 규정들은 정치적 규정들 속으로 사라진다(政治的 決定論).

사실상 西方의 社會主義社會 分析의 주류는 — 그 方法의 모든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 아직도 全體主義說의 결정적인 비판에 이르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 사회 이론에 의해 문제되었던 것 그리고 오직 문제되고 있는 것은 '全體主義的인 것들 속에서의 非全體主義的인 것', '그 體制的 전체주의적인 外皮들 밑에서' 이른바 '체제를 뛰어넘는 산업사회적 과정들'을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테크노크라트적인 사회학적 진단들의 실패는 마치 전에 역으로 全體主義의 발상들이 사회주의 사회들의 動態(변화들)를 파악할 수 없다는 그 無能力이 사회주의 사회의 연구에 있어서 產業社會論的인 전환을 초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政治와 관련된 편협한 해석 방식의 보증을 되찾고 있다.

그리하여 西方에서의 사회주의 사회의 연구는 產業社會論的 發想과 全體主義 理論間的 쓸모없고 지속적인 이론적 갈등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全體社會의 動態를 파악할 수 없는 全體主義 理論의 취약점은 산업사회론적 범주(카데고리)들의 評價切上에 작용하고, 政治이데올로기적 요소의 適宜性을 알맞게 평가할 수 없는 산업사회론적 발상의 취약점은 다시금 전체주의 이론적 범주들의 評價切上에 작용하여 처음부터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 연구에 있어 이러한 영구적인 이론적 논쟁은 단순히 見解의 多元論의 표현인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와 국가(정치)의 분리라는 二元論의인 命題를 기초로 하는 이데올로기적 思惟의 결과이다.

여기에 우리는 1960 년대 이후 分斷國家인 西獨의 左派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分析의 역사를 개관할 필요에 이른다.

이 경우 시기를 크게 세 발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1960 년말에서 1967 년초까지에 이르는 기간이고, 둘째 단계는 1970 년부터 1972 년 사이까지 이르는 더욱 긴 변혁기이며, 마지막 발전 단계는 현재까지 아직 지속하고 있다.

1960 년대초까지 지배적이었던 全體主義 논의는 정치적으로 1969 년 이후 서독의 社會民主主義者(社會民主黨)와 자유주의자(자민당) 聯立政

府의 형성 —이론바 브란트政府의 구성—에 의해 추진된 東方政策을 지향하는 主權 개념으로서 기능했던,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產業社會理論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다.

주로 서독의 사회주의학생연맹(SDS)의 세력권에서 대표되었던 左派의 입장은 바로 이러한 이론들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되었다. 이 左派는 全體主義 이론의 反공산주의와 反사회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전체주의 이론의 도구적 기능은 브르조아 支配의 확보이고, 非역사적인 형식주의의 기호이며 社會政治 分析의 人物化 경향이라 비판했다. 둘째로 民族 문제에 관하여 系統獨政策概念에 반대하여 西獨에 의한 東獨의 국가적 承認을 요구하고, 두 독일 국가 사이의 국제법적 관계의 채택을 주장했다. “再統一은 사회주의적 토대 위에서 결과되어야 하나, 동독은 자본주의적 서독의 可視的인 社會政治의 代案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단계의 경우 左派의 이론적 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분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브란트 서독 정부의 東方政策과 부합했던 產業社會理論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그 산업 사회 이론은 非역사적인 것이라 비판했다. ‘脫스탈린화’와 ‘경제 개혁들’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발전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산업 사회 이론의 이데올로기적 내용은 인식되지 않았고 그러한에서 西方 社會學의 이론들, 해석들 및 개념들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했다.

둘째 시기에 접어들면서 학생 운동의 실천적 경험을 반영한 사회주의 분석내에서 명백한 分化가 생겼다. 1966년말에서 1967년까지의 민주적 학생 운동은 反權威主義의이고 反帝國主義의이며 反資本主義的 對決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결정적 전제가 所有 問題의 해결이라는 인식에 직면했다. 言論財閥인 ‘슈프링거를 물수하라’는 구호가 이를 단적으로 표현했다. 그에 이어 정치적 左派의 대다수는 社會主義 국가들에 있어서의 ‘進歩的’인 기초(이론바 ‘下部構造’)와 ‘후진적’인 정치이데올로기적 上部構造間의 矛盾의인 구조라는 개념으로 대결함을 지위졌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분석에 있어 政治體制의 分析에 국한했다. 사회주의 사회 체제들의 사회적 내용과 역사적인 특수 형태의 정치경제학적 논증을 포기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프랑크푸르트學派의 이론들, 反스탈린주의적인 유교 社會學者와 哲學者의 ‘실천’철학의 수용, 그리고 특히 마르쿠제(H. Marcuse)의 이론들이 자리잡았다.

마르쿠제의 경우, 所有關係의 과소 평가는 體制收斂論과 產業社會라는 개념의 표기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그 사회들의 동일한 경향화로 특징지워 하나로 —그러므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배 계급들의 戰略的 出版機關들에서, 말하자면 고도로 발달한 產業社會들의 技術·社會的인 收斂 過程의 표기 속에서 브래진스키(Zbigniew Brzezinski)와 같은 사람이 ‘接近을 통한 變化’의 對外政策의 戰略을, 그리고 유럽 사회주의 국가(공산주의 국가)들의 ‘社會民主主義化’를 定式化했던 같은 시기에 마르쿠제의 ‘左派的’인 收斂 理論이 西獨 학생 운동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얻었다. 위에 든 이론들 중 어떤 이론의 영향을 받았든 이 시기의 左派의 이론적 입장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소간에 자본주의 사회들과 동일하고, 자본주의의 社會政治的 代案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경제 개혁의 民主化 층들에서 親資本主義的인 體制 克服의 기대를 걸었다. 그 경우 이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이라는 전통적 改革主義的인 개념들로 소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재삼 經濟改革과 관련된 體制收斂論의 여러 가지 變型들로 소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8년 8월의 체코事態 — 바르샤바條約案 侵入에 의한 두브체크 改革共產主義 政權의 붕괴, 그러므로 西獨 大聯政이 추구한 東方政策의 일시적 좌절—에 직면하여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제 체제’는 ‘民主化’의 토대 또는 動力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官僚主義的 改革들로 해석되어 體制收斂論的 해석들로 빠른 접근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분석에 있어 ‘官僚主義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의 관철이 결과였다.

1970년부터 1972년 이후 —그러므로 이른바 ‘原油危機’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 마르크스주의 세력의 출현으로 인한 서독에 있어서의 政治 및 학문적 경향의 兩極化로 —예를 들면 1975년의 이태리 공산당이 보수적인 基民黨에게 ‘歷史的 妥協’을 제안했는가 하면 西獨 총선거에서 보수적인 基民黨(CDU/CSU)은 ‘사회주의나 자유냐’라는 이데올로기적인 兩極化를 선거 포어로 들고 나왔다— 위에서 지적된 서독 학생 운동의 모순 해결 방식은 1972년에 출판된 로산다(Rossana Rossanda)의 저서인 「사회주의 국가들, 西유럽 左派의 딜레마」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즉,

“이러한 관점하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난관들, 변형들 및 後進性들은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기초가 여전히 사회주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 현상들이다……. 이 모든 것은 기초(이른바 ‘下部構造’…인용자)와 上部構造間의 非同時性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 기초와 상부구조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해 정치(국가)와 경제(사회)의 二元論的 命題는 止揚되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구체적인 基本 形態로서의 ‘社會政治’가 인식의 대상으로 부활되고 있음을 본다. 즉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에 대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代案的 性格을 근본적으로 논쟁한다는 뜻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진보적’인 기초와 ‘후진적’인 政治이데올로기적 上部構造 사이의 ‘모순적 구조’라는 그 모순이 해결된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제 문제로 된 것은 國有化된 經濟가 非社會主義의 性格을 지니는가이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그 支配體制들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가장 敵對主義的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들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개념 역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는 ‘平和共存’ 개념에 입각한 東西協力體制의 형성이 세계사적인 흐름으로서 강요되고 있다면, 그리하여 ‘善惡의 體制競爭’과 동시에 民族의 協力

形態들의 창조가 유일한 民族主義的인 길이라면, 그것은 바로 ‘脫이데올로기화’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두 사회 정치 질서의 代案的 流俗을 드러내 놓고 協力 形態를 창조해 나아가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 3. 긴장 완화를 향하여

全體主義 理論에서 파시즘 支配體制와 공산주의 支配體制를 同一化시킬 때 그 모델은 지난 날 분명히 소련에 실재하고 있었던 스탈린주의적 支配體制였다. 마르크시즘은 이른바 ‘소비에트마르크시즘’과 동일시되어 ‘경제적 결정론’, 그런 뜻에서 말하자면 ‘正統的 마르크시즘’으로 변조되어 해석되었다. 그 경우 언제나 사회주의 사회들의 분석은 政治이데올로기(이른바 ‘上部構造’)의 ‘分析’에 국한됨으로써 그 해석들은 政治的 決定論에 빠졌다.

여기에 그러한 決定論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탈린이 그의 ‘一國社會主義’論을 이문화함에 있어 제 8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엥겔스(Engels)의 社會主義 國家의 發展 理論을 문제시하고 있음에 관심이 쏠린다. 즉 엥겔스의 命題는 두 가지 조건하에서는 첫째로 社會主義 國家를 국제적 상황(국제적 조건)으로부터 분리시켜 다만 그 나라의 內的 發展의 立場에서만 볼 경우, 둘째로 사회주의가 이미 모든 나라에서 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승리하였다는 전제하에서 고찰하는 경우에만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한 나라에서만 승리하는 경우, 그리고 그에 직면하여 여하한 방법으로도 국제적 조건을 도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一國社會主義’ 命題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탈리니즘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로산다의 方法論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어떤 사회 체제의 獨占物(그런 뜻에서 ‘도그마’)로서 보는 고찰 방법 대신에 두 사회 체제를 對比시키는 새로운 고찰 방법을 택하든가, 바로(Rudolf Bahro)가 말하듯이 東과 西에서의 (각기 상이한 개념으로서의) ‘民主化’라는 뜻에서 동시적인 社會의 變化를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